교회소식

- 예결산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 당회 대표, 재정부, 예배부, 교육부, 선교부
  - 예결산위원장: 서영수
  - 위원: 홍성훈, 이승택, 김현정, 안상민, 기세학
  - 감사: 이영순

  다음 주일(12/15) 첫 모임을 갖습니다.

- 예배 및 행사 안내
  - 12월 22일(주) 성탄주일 (연합예배, 성탄 칸타타, 성찬식)
  - 12월 24일(화) 저녁 8시 성탄전야예배
  - 12월 31일(화) 저녁 11시 송구영신예배
  - 1월 5일(주) 신년주일 (연합예배. 윷놀이)

- 선교부
  - 2020년 세광교회 단기선교 광고

    기간: 2020년 2월17일 – 21일(Presidents Day Week)

    장소: Honduras (최문재 선교사)

    신청 마감: 2019년 12월15일
  - 뉴욕세광교회 10월 선교사 기도편지가 헌금함 옆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섬기는 사람들

12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성창현 집사 (시편 146:5-10)

이번 주 친교: 윤정호 집사, 김정희 집사

다음 주 친교: 이현주 집사, 박홍매 집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이정석(WEC 본부),
장영호(러시아 미전도 종족),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제19권 47호 2019년 12월 8일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창세기 성경공부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 "All Who Are Thirsty"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 Leader
Word of God ---------- **Romans 5: 1-8** ---------- Pastor Kim
Sermon ---------- **"Jesus, Our Hope"** ----------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 Together
Closing Praise ---------- "Nothing But the Blood" ---------- Together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25장(통25장) "면류관 벗어서" ---------- 다함께
Hymn — Crown Him With Many Crowns

대표기도 ---------- 시편 72:1-7, 18-19 ---------- 석동훈 집사
Prayer — Psalm 72:1-7, 18-19

찬양 ---------- "주님은 기다리네" ---------- 세광 찬양대
Anthem —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이사야 51:9-16** ---------- 인도자
Word of God — Isaiah 51:9-16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설교 ---------- **"어찌하여"**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405장(통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 다함께
Hymn — What a Fellowship, What a Joy Divine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주일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사야 51:1-8; 신명기 6:4-5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명령은 "들으라!"입니다(51:1, 4, 7).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은 단순한 청각적 반응이나, 내용의 전달을 넘어서 대면하여 말하고 듣는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대면하여 말하고 듣는 관계 속에서는 말의 내용 보다 훨씬 깊고 많은 것들이 나눠집니다. 우리의 말씀 생활이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혈혈단신이었지만 큰 민족이 그로부터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비록 황폐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들으라 하십니다(1). 왜냐하면 공의와 구원이 그에게 있으며 그 팔로 친히 공의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4). 그렇기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7).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믿읍시다. 우리 사정을 아실 뿐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들으라!"는 명령과 "하나"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마와 손목에, 집 문설주에 매여져 있던,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쉐마").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마음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라는 참 의미를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혈혈단신이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 밖에 없는 존재로 보셨다는 겁니다.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 민족이 나고, 메시야가 오시며,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1)"입니다.

아브라함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창 22:2)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은 독특하고 유일하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크고 높고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대접해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나만 낼 수 있는 찬양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모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크고 멋진 교회들이 많아도 이 자리,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모인 세광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를, 우리 교회를 "하나" 취급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일심으로 경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은혜 중 하나 취급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의견 중 참고할 만한 의견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된 마음, 온 생명,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높거나 낮거나, 많거나 적거나,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놀라운 일 가운데 다시 없이 유일한 "하나"로 사용 받습니다.

Memo